

원세림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프카다 아야코**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원(동경대 박사)

국가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논의와 직결된다. 이는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수반되는 현 시점에서, 비단 한 국가에만 국한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 역시 신산업 수요의 발굴과 전문 인재의 양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100만 디지털 인재, 반도체 및 배터리, AI 등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인근 국가인 일본 역시 학령인구의 감소를 겪고 있고, 미래사회를 견인해 나갈 수 있는 인재가 부족하다는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전체 고등교육기관 중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7%로 압도적으로 높고,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1인당 공교육비는 공적부담 대비 사적부담이 월등히 높다는 측면은 한국과 매우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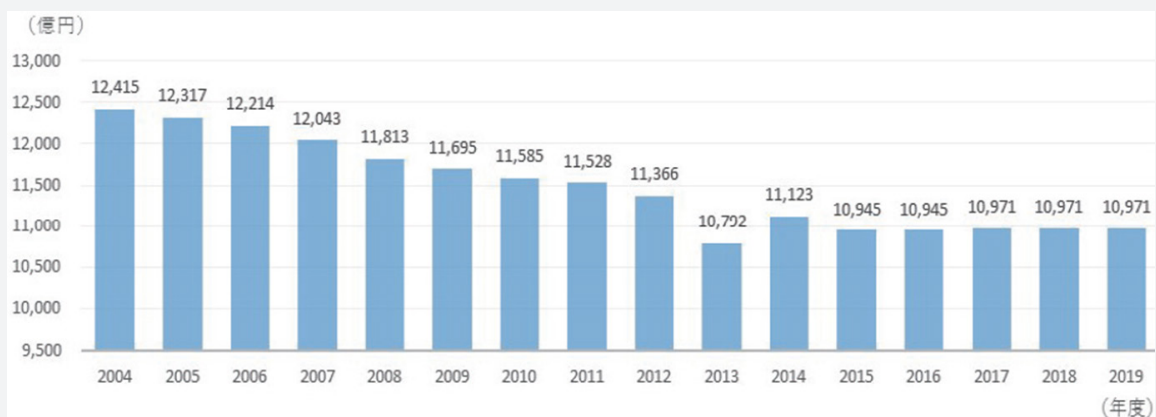
하지만 분명한 차이도 존재한다. 예컨대 일본은 대학에 대한 공적 지원의 범위에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모두 포함된다는 특징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립대학법인을 대상으로 운영비 교부금,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경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경상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국과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이 등록금 인상 상한에 대한 조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의 경우 사립대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공적 지원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고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 분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 대학 유형별로 공적 지원의 내용과 기준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국립대에 대한 공적 지원 기준

일본은 국립대학법인을 대상으로 운영비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의 운영비교부금은 업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개념으로, 6년 동안의 중기 목표기간 내 중기 계획에 근거하여 교육·연구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반적 경비를 의미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사용이 특정되지 않은 교부금(handover grant)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2004년부터 2019년까지의 운영비교부금 예산 추이를 확인하면([그림 1] 참고), 2004년 약 12,415억 엔에서 2013년까지 연도별 감소를 지속하다가, 2014년을 기점으로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예산 규모는 약 10,971억 엔(한화 약 10조 6천억 원)으로, 이는 국립대학법인의 전체 수입액의 약 30% 규모에 해당한다.



자료: 문부과학성(2021a).

**[그림 1]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 연도별 예산액 추이(2004년~2019년)**

국립대학법인의 운영비교부금 구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운영비교부금은 크게 ‘기간(基幹)운영비 교부금’과 ‘특수요인 운영비 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전체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의 약 92%(2021년 기준)를 차지하는 ‘기간운영비 교부금’은 지원 내용과 방식에 따라 ‘기간경비’와 ‘기능강화경비’로 다시 구분되며, 이 중 ‘기간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4%(2021년 기준)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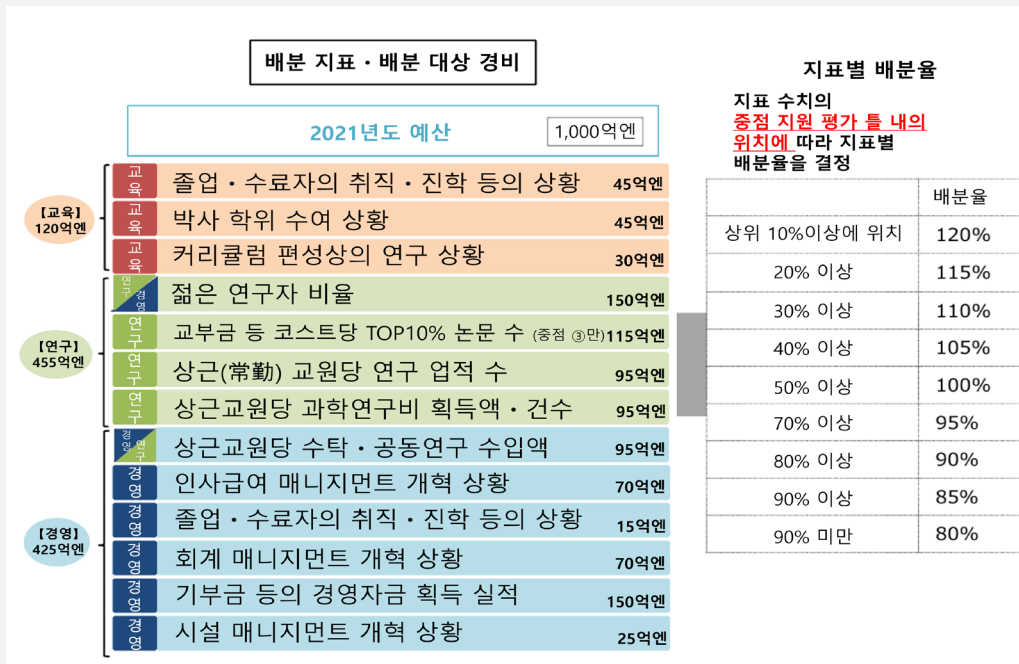
<표 1> 국립대학법인 운영비교부금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구 분		의 미	배분 기준
기간운영비 교부금 (2021년 기준 9,910 억 엔 규모)	기간경비 (2021년 기준 9,273억 엔 규모)	인건비나 광열 수도 요금 등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에 필요한 기반적인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되, 일부 평가를 바탕으로 배분</li> <li>기간 경비를 기준으로 각 대학의 배분 대상 경비를 결정하고, 성과 중심 실적 평가를 통해 배분액 추가 지원</li> </ul>
	기능강화경비 (2021년 기준 53억 엔 규모)	대학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대학 특성을 고려한 소요 재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의 선택에 따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경비: 학술 정보 네트워크(SINET) 정비 사업, 대형 광학 적외선 망원경 「스바루」의 공동 이용 연구 등</li> <li>세 개의 중점 지원 분야 중 대학이 선택한 분야에 대해 대학이 설정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평가 및 배분</li> </ul> </li> </ul>
특수요인 운영비 (2021년 기준 881억 엔 규모)		교직원의 퇴직 수당 등 의무적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별 사정에 따라서 배분</li> </ul>

자료: 재무성(2020).

먼저 ‘기간경비’를 살펴보면, 국립대학의 교육·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반적 경비를 의미하며, 원칙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배분하되, 성과를 중심으로 실적에 근거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때 추가 지원은 배분 지표별 대상 경비와 지표별 배분율을 반영하여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기간경비에서 각 대학을 대상으로 배분될 경비를 중심으로, 배분 지표별 배분율을 곱하여 배분액을 결정하게 되며, 2021년 기준 추가 지원액 규모는 약 1,000억 엔(한화 약 9,708억 원) 규모이다([그림 2]참고).

배분 지표는 크게 교육, 연구, 경영의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교육의 경우 대졸자 등의 취업, 박사 학위 수여, 교육과정 편성에 근거한 연구 등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연구의 경우 연구자 비율 및 논문 수, 연구 업적 및 과학 분야 연구 수주 실적 등의 네 가지 하위 항목으로 세분화된다. 경영의 경우 수주 연구비, 대졸자 등의 진로, 회계 관리 및 기부금 유치 등의 여섯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 교육 및 연구, 경영 각각의 예산 지원 규모는 120억 엔, 455억 엔, 425억 엔이다. 또한 지표별 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120%부터 최소 80%까지의 배분율로 결정된다.



자료: 문부과학성(2020, 2021a).

**[그림 2] 기간운영비 내 기간 경비 지원을 위한 성과 및 실적 기반 평가 기준**

기간운영비 교부금을 구성하는 또 다른 항목인 ‘기능강화경비’는 대학의 경쟁력 향상과 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세 개의 중점 지원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2021년 기준 약 535억 엔(한화 약 5,117억 원) 규모이다. 특히 세 개의 중점 지원 분야는 대학별로 하나의 중점 지원 분야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 지표를 설정한 후, 연도별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①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 육성·연구, ②분야별 우수한 교육·연구 거점이나 네트워크의 구축, ③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탁월한 교육·연구 분야로 구분되며, 2018년 기준 각 중점 지원 분야별 대학 분포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중점 지원 분야별 평가결과에 따른 대학 분포 현황(2018년도 예산 기준)**

분야	대학 수	80% 미만	80% ~90%	90% ~100%	100% ~110%	110% 초과
① 지역 요구에 따른 인재 육성·연구	55개	2	7	21	18	7
② 분야별 교육연구 거점이나 네트워크 구축	15개	1	1	5	7	1
③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연구 수행	16개	0	0	9	7	0

자료: 다케우치 겐타(2019).

세 개의 중점 지원 분야를 선택하여 ‘기능강화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연차별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액이 결정된다. 평가지표의 적합성과 기준치 및 연도별 목표치 대비 실적 등을 평가하며, 특히 후자를 통해 예산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상세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중점 지원 분야에 대한 평가 항목 및 주요 내용

구분

평가지표(KPI)의  
적합성

내용

[개요] 대학별 전략 기반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하며, 3가지 평가 관점 충족 여부 검토 후 4단계 평가

[평가 관점]

- 평가에 초점을 둔 적절한 KPI 설정 여부
- 사후 객관적인 검증이 가능하며, 성과·효과의 측정 가능 여부
- 목표 성과에 대해 현재까지의 실적 및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인가(국립대 역할 고려)

[평점 기준]

a 평점: 3가지 평가의 관점 모두 충족, 목표 성과 수준이 탁월

b 평점: 3가지 평가의 관점 모두 충족

c 평점: 3개의 평가의 관점 중 하나의 관점 미충족

d 평점: 3가지 평가의 관점 중 2개 이상의 관점 미충족 또는 관점 중 하나에 중대한 결함 존재

[결과 활용] 예산 지원 시 평가 결과 미반영

전년도 대비 목표  
달성 정도 및  
진척 상황 평가

[개요] 설정된 평가지표(KPI)별 기준치 및 연도별 목표치 이상의 달성 정도 평가하며, 4단계로 평가

[평가 관점]

- 설정된 목표 달성을 위한 진행 정도
- 개선이 되지 않거나, 실적이 감소하는 경우 향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 정도

[평점 기준]

a 평점: 기준치 및 연도별 목표치 이상의 실적이 있는 동시에, 기준치, 연도별 목표치 및 최종 연도의 목표치 대비 월등한 실적 보유 또는 그 외 각종 정부 방침 등에 근거하여 실적치가 매우 높은 경우.

b 평점: 기준치 및 연도별 목표치 이상의 실적치

c 평점: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향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책 마련

d 평점: 실적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않고, 향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경우 또는 기준치, 각 연도의 목표치나 최근 4개년의 실적치가 없는 경우, 또는 실적치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는 등 매우 저조한 경우

[결과 활용] 예산 지원 시 평가 결과 반영

– 득점환산표에 근거하여 전략별 평균점 산출 → 합산하여 전략 수로 나누어 법인의 평균점 산출 → 배분율 결정 → 평가 대상 경비에 배분율 곱하여 배분액 산출

득점 환산표	a 10점/b 6점/c 2점/d 0점																						
배분율	105%: 중점지원 ① 8개 / 중점지원 ② 1개 / 중점지원 ③ 1개 102.5%: 중점지원 ① 8개 / 중점지원 ② 3개 / 중점지원 ③ 3개 100%: 중점지원 ① 12개 / 중점지원 ② 4개 / 중점지원 ③ 5개 97.5%: 중점지원 ① 11개 / 중점지원 ② 3개 / 중점지원 ③ 3개 95%: 중점지원 ① 16개 / 중점지원 ② 4개 / 중점지원 ③ 4개																						
예시	<div>(대학 득점 계산의 이미지)</div> <table><tr><th>A대학</th><th>평가항목②</th><th>득점 환산</th><th>전략 평균</th><th>A대학 평균</th></tr><tr><td rowspan="2">전략1</td><td>지표①</td><td>a</td><td>10</td><td rowspan="2">6</td><td rowspan="4">4.5</td></tr><tr><td>지표②</td><td>c</td><td>2</td></tr><tr><td rowspan="2">전략2</td><td>지표③</td><td>d</td><td>0</td><td rowspan="2">3</td></tr><tr><td>지표④</td><td>b</td><td>6</td></tr></table>	A대학	평가항목②	득점 환산	전략 평균	A대학 평균	전략1	지표①	a	10	6	4.5	지표②	c	2	전략2	지표③	d	0	3	지표④	b	6
A대학	평가항목②	득점 환산	전략 평균	A대학 평균																			
전략1	지표①	a	10	6	4.5																		
	지표②	c	2																				
전략2	지표③	d	0	3																			
	지표④	b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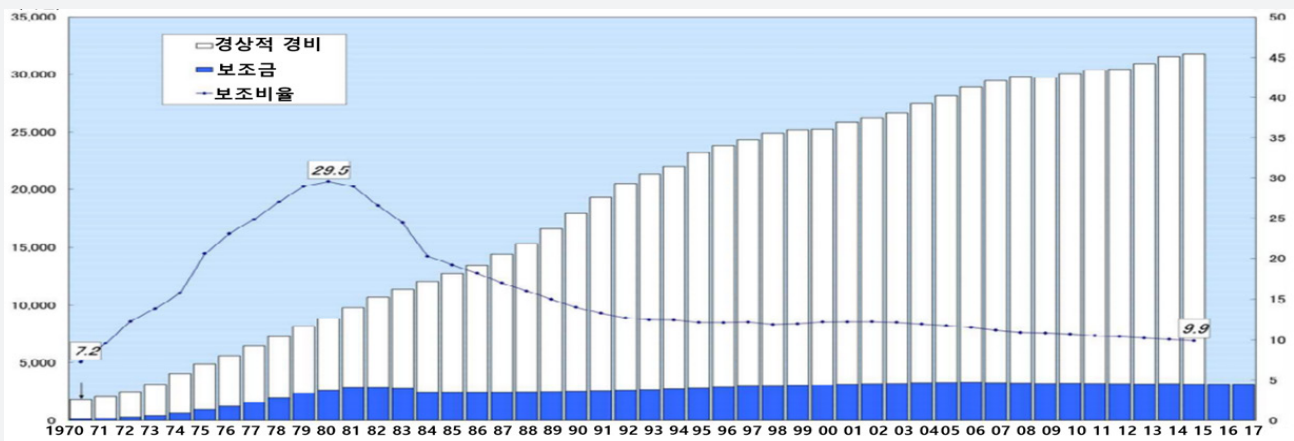
## 2. 사립대에 대한 공적 지원 기준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공적 지원으로는 경상비 보조금을 들 수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위해 교직원 급여 및 교육연구 경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상비 보조금은, 전체 사립대학 수입 기준 약 10% 내외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2022년 기준 약 2,975억 엔(한화 약 2조 9천억 원) 규모이다. 또한 경상비 보조금 규모는 대학의 경상적 경비 대비 연 10% 내외의 지원 수준이며, 경상적 경비의 증가 추세 대비 경상비 보조금 지원액이 정체 수준임에 따라 1980년도 29.5% 이후 연도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4〉 연도별 사립대학 경상비 보조금 지원 실적

구분	1975년도	80년도	93년도	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예산안)
경상적 경비	4,892	8,818	21,359	28,849	29,426	29,786	29,691	30,052	30,449	30,516	30,977	31,580	31,773		
경상비 보조금	총액	1,007	2,605	2,656	3,313	3,281	3,249	3,218	3,222	3,209	3,188	3,175	3,184	3,153	3,153
	(신율)	(57.4)	(10.6)	(2.1)	(0.6)	(▲ 1.0)	(▲ 1.0)	(▲ 1.0)	(0.1)	(▲ 0.4)	(▲ 0.7)	(▲ 0.4)	0.3	(▲ 1.0)	0
	신액	367	250	54	20	▲ 32	▲ 32	▲ 31	4	▲ 13	▲ 22	▲ 12	9	▲ 31	0
	중 특별보조 비율	17	73	397	1,109	1,113	1,113	1,102	1,102	398	394	393	422	441	464
	(1.7)	(2.8)	(15.0)	(33.5)	(33.9)	(34.3)	(34.3)	(34.2)	(34.2)	(12.4)	(12.4)	(12.4)	(13.3)	(14.0)	(14.7)
보조 비율	20.6	29.5	12.4	11.5	11.1	10.9	10.8	10.7	10.5	10.4	10.3	10.1	9.9		

자료: 문부과학성(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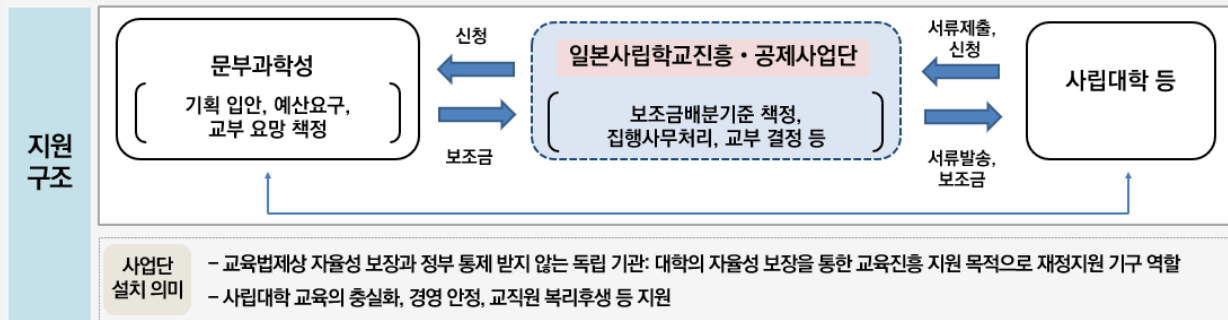


자료: 문부과학성(2017).

〔그림 3〕 연도별 대학의 경상적 경비 대비 정부의 경상비 보조금 비율

경상비 보조금은 일본의 사립학교 진흥조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여건 악화를 개선하고, 학비부담의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75년 사립학교 진흥조성법이 제정되었으며, 학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립학교 경영의 건전성 제고,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 또는 연구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의 1/2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다만,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은 국립대학법인의 운영비 교부금과 차이가 있다. 사립대학에 대한 경상비 보조금은 문부과학성에서 각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사립학교 진흥·공제 사업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업단은 독립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사업단을 통한 경상비 지원은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교육 진흥의 목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왕문사 교육정보센터(2006).

[그림 4] 경상비보조금 지원 구조

또한 경상비 보조금은 일반보조금과 특별보조금으로 구분된다. 일반보조금은 전체 경상비 보조금의 85% 내외를 차지하며, 대학 운영에 필수적인 교육·연구와 관련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정원 미충족 대학에 대해 보조금 지원 감액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대학의 정원 관리를 수행하기도 한다. 특별보조금은 대학의 특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예컨대 사회 변화를 고려한 초 스마트사회 실현이나 지방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대학의 구체적인 경영 개선이나, 조직의 기능 고도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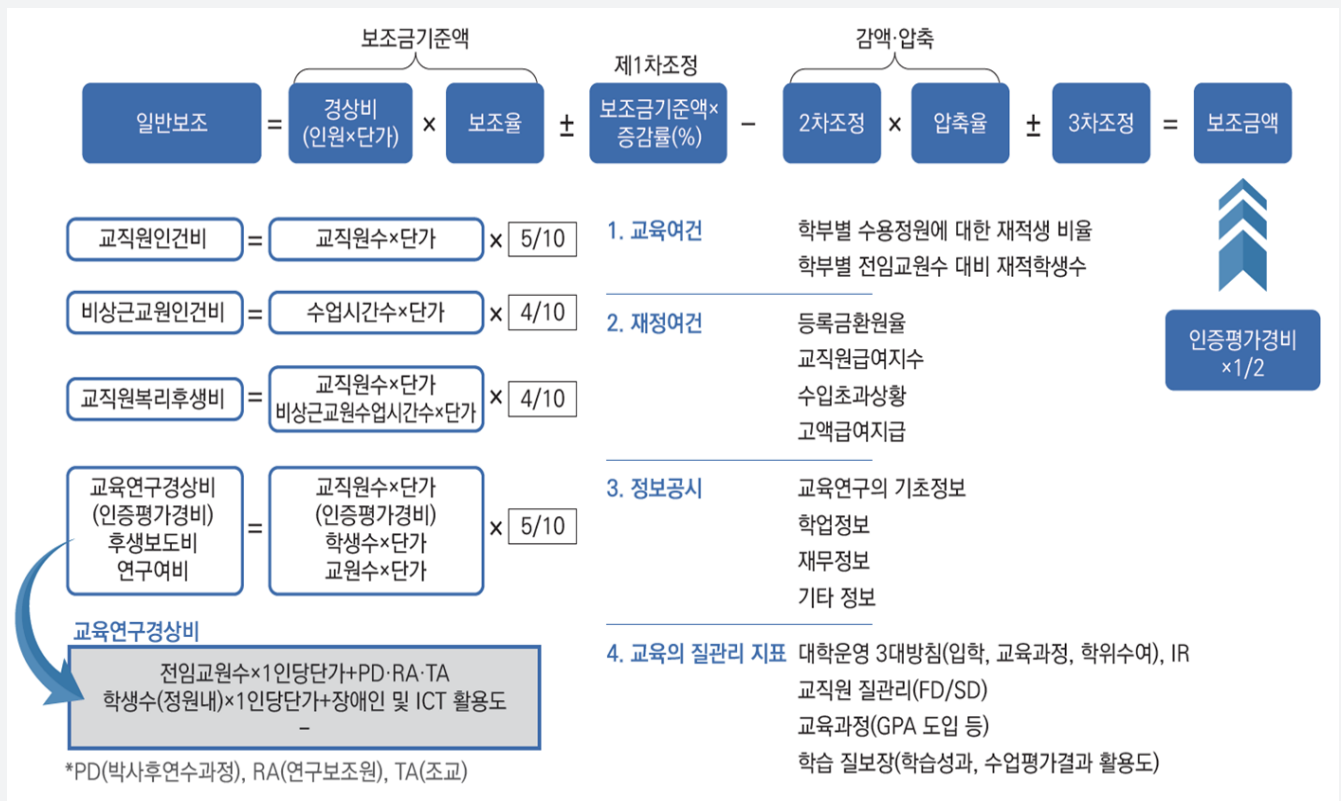
경상비 보조금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먼저 일반보조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 금액이 산출된다. 경상비 산정 금액을 중심으로 보조금 기준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조정 과정을 거쳐 보조금 규모를 재산정한다. 이후 추가적인 감액 조건 해당시 기준액을 감액하여 최종적인 경상비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경상비 산정 → 보조금 기준액 산정 → 보조금 기준액 증·감 → 추가 감액 조건 해당시 기준액 감액(대출금 미상환 대학 등)

[그림 5] 경상비보조금 지원 구조

전체 경상비 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보조금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보조금은 크게 교직원 인건비, 비상근 교원 인건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교육연구 경상비, 후생보도비, 연구여비로 구성되며([그림 6] 참고), 이에 대한 보조금 기준액 산정은 <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자료: 정원창(2021).

[그림 6] 경상비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기준(일반보조금)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교직원 수에 일정 단가 및 비율 적용, 비상근 교원 인건비는 수업시간 수를 중심으로 일정 단가와 비율을, 각종 보험 및 연금 등을 지원하는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교직원 수와 비상근 교원의 수업시간 수를 중심으로 일정 단가와 비율을 적용한다. 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 경비 및 인증평가경비 등이 포함된 교육연구 경상비의 경우 교직원, 학생, 교원수 등에 일정 단가와 비율을 적용하며, 후생보도비는 학생수에 일정 단가 및 비율을, 연구 여비는 전임교원 수에 일정단가 및 비율을 반영하여 최종 보조금 기준액을 산정한다.

[표 5] 경상비 보조금 산정 세부 기준 및 내용(일반보조금)

의미	배분 기준(①과 ②중 낮은 쪽 선택)
[전임 교원 등 급여비] 급여비, 퇴직금 재단 부금 (賦金) (×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비: 전임교원 등 인원수×①전임교원 등 1인당 연간 표준급여비(5,731천엔) 또는 ② 전임 교원 등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비</li> <li>퇴직금 재단 부금: 전임교원등 인원수×①전임교원 등 1인당 표준경비(420,000엔) 또는 ② 전임교원 등 1인당 평균 지출액</li> </ul>
[전임 직원 등 급여비] 급여비, 퇴직금 재단 부금(×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급여비: 전임 직원 인원 × ① 전임 직원 1인당 연간 표준 급여비(3,601천엔) 또는 ② 전임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비</li> <li>퇴직금 재단 부금: 전임 직원 인원 × ① 전임 직원 1인당 표준 경비(262,000엔) 또는 ② 전임 직원 1인당 평균 지출액</li> </ul>
비상근 교원 급여비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근 교원의 수업 시간 수 × ① 수업 시간당 표준 경비(5,100엔) 또는 ②비상근 교원의 수업 시간당 평균 급여비</li> </ul>

<p>교직원 복리후생비 (×4/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 교직원 재해 보상 보험료: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 수 × ①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 1인당 표준 경비(교원 17, 000엔, 직원 11,000엔) 또는 ②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의 1인당 평균 지출액</li> <li>• 비상근 교원 재해 보상 보험료: 비상근 교원의 수업 시간수 × ① 5,100엔×3/1000 또는 ② 비상근 교원 수업 시간당 평균 지출액</li> <li>• 전임 교직원 고용보험: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 수 × ①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의 1인당 표준 경비(교원 34, 000엔, 직원 22,000엔) 또는 ②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의 1인당 평균 지출액</li> <li>• 비상근 교원 고용보험: 비상근 교원의 수업 시간수 × ① 5,100엔 ×6/1000 또는 ② 비상근 교원 1 수업 시간당 평균 지출액</li> <li>• 전임교직원 연금급여금 및 후생연금보험료: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 수 × ①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의 1인당 표준 경비(교원 479,000엔, 직원 301,000엔) 또는 ② 전임 교원 수 및 전임 직원의 1인당 평균 지출액</li> </ul>
<p>교육 연구 경상비(×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의 교육 또는 전임 교원 등이 실시하는 연구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비품(500만엔 미만), 도서, 소모품, 연료 등의 구입비 및 임금, 인쇄 제본비, 광열수도로, 통신 운반비 기타 경상적 경비</li> <li>• 전임교원 등 전임직원의 연구를 위한 외국여행비(철도비, 선임, 항공비, 차임, 일당 및 숙박료)</li> <li>• 사회인에 대한 교육, 비상근 교원이 실시하는 연구 등에 직접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비품, 도서, 소모품, 연료 등의 구입비 및 임금, 사금, 인쇄 제본비, 광열수도로, 통신 운반비 기타 경상적 경비</li> </ul> <div> <p>전임 교원수 × 단가 (명칭 「교원 경비」)</p> <p>교육 연구 보조원수 × 단가</p> <p>학생수 × 단가 (명칭 「학생 경비」)</p> <p>장애학생 수 × 단가</p> <p>장애학생에 대한 구체적 배려의 대처 상황 × 단가</p> <p>ICT를 활용한 교육 연구 환경 정비 상황 × 단가</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이 정한 인증 평가를 위한 인증 평가 기관 평가료, 저작권법이 정한 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 인증 평가 기관 평가의 경비, 수업 목적 공중 송신을 이용하는 학생 수 × 수업 목적 공중 송신 보상금(실제 지출액 한도)</li> </ul>
<p>후생보도비(×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수 × 3,900엔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실제 지출액 한도)</li> </ul>
<p>연구 여비(×5/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임 교원수 × 70,000엔 수업목적 공중송신보상금(실제 지출액 한도)</li> </ul>

자료: 정원창(2021).

또한 산정된 보조금 기준액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증감 기준을 적용하며, 구체적 내용은 <표 6>과 같다. 우선 대표적으로 교육조건, 재정상황, 정보공시, 교육의 질 관련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 수행을 통해 경상비 보조금(일반보조금)에 대해 최소 1%부터 최대 140%까지 범위 내 증감이 이루어 진다. 이 외에도 전년도 기부금의 규모, 정원 감축분,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기타 감액 또는 미교부 기준 등에 대한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기준액 규모를 조정한다.



〈표 6〉 경상비 보조금의 증감 기준(일반보조금)

의미	배분 기준
경상비 보조금(일반보조금)에 대한 1~140%까지의 범위 내 증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조건: 입학 정원 총족률, 수용 정원 총족률/교원 당 학생 수</li> <li>• 재정상황: 수업료 수입에 대한 교육 연구 경비, 설비 관계 지출 비율/ 교직원 급여 지수/ 전임 교직원의 연간 급여 상황 등/ 학교 법인 수입 초과 상황</li> <li>• 정보공시 실시: 교육 연구상의 기초적 정보/수학상의 정보/재무 정보</li> <li>• 교육의 질에 관한 객관적 지표 관련 사항</li> </ul>
전년도의 기부금 규모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0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합계 금액에서 3,000만 엔 공제한 액수를 보조금 기준액으로부터 감액 가능</li> </ul>
정원 감축분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설치된 학부·학과의 정원 감소를 통해 설치된 학부에 대해 기설치된 학부·학과의 정원을 줄인 입학정원의 범위내로 감액 (전임 교원 등 급여비(퇴직금 부금 제외), 교육 연구 경상비(인증 평가 경비 제외)의 교원 및 학생과 관련된 경비, 후생보도비, 연구여비)</li> </ul>
타 재정지원사업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대학 등 개혁 종합지원사업」 지원 대상대학은 교육연구경상비(인증 평가 경비 제외)를 별표 기준에 따라 증액할 수 있다.</li> </ul>
감액 또는 미교부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술 및 교육의 진흥을 위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교육연구경상비(인증 평가 경비 제외) 증액 가능.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감액 또는 미교부 가능</li> <li>① 50%감액: 전년도 운용자산 &lt; 외부부채, 과거 3년 각 연도의 경상수지 차액이 마이너스 교부 불가: 전년도 운용자산 &lt; 외부부채, 과거 3년 각 연도의 경상수지 차액이 마이너스, 해당 연도를 포함한 과거 3년 중 수용 정원 총족률이 연속 80% 미만</li> <li>② 교육의 질에 관한 객관적 지표의 증감율: - 4%시 25% 감액, - 5%시 50% 감액, - 6%시 75% 감액</li> <li>③ 수용 정원 미충족율 관련 감액: 수용 정원 총족률 80% 이상 90% 미만은 10%(지방소재 대학 5%) 감액, 수용 정원 총족률 70% 이상 80% 미만은 20%(지방 소재 대학 10%) 감액, 수용 정원 총족률 70% 미만은 30%(지방 소재 대학 10%) 감액</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수업료 감면 사업 등 지원 실시 상황에 대해서 별표 기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가능, 이상으로 정한 것 외, 종합적으로 필요가 인정될 때는 문부과학대신과 협의 후 증액 또는 감액 가능</li> </ul>

자료: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2022).

마지막으로 특별보조금의 경우 특정 목적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이므로, 지원 목적의 구체성을 갖는다. 지원하는 영역에 대해 구분해보면, 지방대학 지원, 재해지 부흥 지원, 수리 및 AI교육 등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는 ‘질 높은 교육 수행’, 사회인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및 평생학습 등을 포함하는 ‘사회인의 조직적 수용’, 교직원 및 학생의 해외 파견 및 초청을 포함하는 ‘국제교류 기반 정비’, 대학원 연구 수행 지원을 위한 시설 및 학비 감면 등의 ‘대학원 등 기능의 고도화’, 재해 사립대학 등의 부흥을 위한 특별 보조인 ‘동일본 대지진 부흥 지원’이 있다. 각각의 영역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건수 및 인원수, 영역별 명시된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가 조정된다.

〈표 7〉 경상비 보조금 지원 영역 및 내용(특별보조금)

구분	영역	내용
성장력 강화에 공헌하는 질 높은 교육	지방에 공헌하는 대학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의 직을 지지하는 인재 육성</li> <li>• 지역사회 발전을 지지하는 실천적인 어학력의 습득</li> </ul>
	의학부 입학 정원의 증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부 입학 정원 증원수 고려 증액 (의사 국가 시험 합격률이 사립대학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증액 단가의 10% 감액)</li> </ul>
	재해지 등의 부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해지의 부흥 지원: 건당 단가 증액</li> <li>• 수업료 감면 사업 등 지원: 소요경비의 일정 비율 증액</li> <li>•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지원: 건당 단가 증액</li> </ul>
	수리·데이터 과학·AI 교육의 충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활동에 따른 일정규모 액수 증액</li> </ul>
사회인의 조직적 수용	사회인 수용 환경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당 일정 단가 증액(대학 정원 규모를 고려한 차등)</li> </ul>
대학 등 국제교류 기반 정비	해외에서 학생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1인당 일정금액 단가 증액(최대 한도 존재)</li> </ul>
	해외에서 온 교원 초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1인당 일정 단가 증액</li> </ul>
	학생 해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일정 단가 증액(최대 인원수 존재)</li> </ul>
	교직원 해외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일정 단가 증액</li> </ul>
	대학 등 교육 연구 환경의 국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당 일정 단가 증액(대학 정원 규모를 고려한 차등)</li> </ul>
대학원 등 기능의 고도화	대학원 연구 충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원수당 일정 단가 산출 x 인사 계획에 따른 조정율 x 여성 연구자 지원 등에 따른 조정율 (인원수=조건 충족 학생 수/전체 대학원 학생 수x전임 교원 수)</li> </ul>
	대학원생 수업료 감면 사업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원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사업 등 지원: 소요 경비 1/2 이내</li> <li>•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수업료 감면 사업 등 지원: 1인당 일정 단가x대상자 수x 평균 감면률</li> </ul>
	연구 시설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 충족 시 소요 경비 고려 증액</li> </ul>
	대형 설비 등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 충족시 소요 경비 고려 증액(내진화 작업 미 실시시 일정비율 감액)</li> </ul>
	대학 간 연계에 따른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 충족시 소요 경비 고려 증액</li> </ul>
	전문직 대학원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정원 및 전임교원 1인당 일정 단가에 조정율 적용하여 증액</li> </ul>
	법학과 대학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 정원 및 전임교원 1인당 일정 단가에 조정율 및 가산율 적용하여 증액</li> </ul>
	단기 대학·고등 전문 학교의 교육 연구의 충실	
동일본 대지진 부흥 지원	수업료 감면 사업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건 충족 대학의 소요경비의 4/5 이내 증액</li> </ul>
	재해 사립 대학 등 부흥 특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1인당 일정 단가, 입학자 지원 및 배려 정도에 따른 소요경비 증액</li> </ul>

자료: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2022).

**[참고문헌]**

- | 다케우치 겐타(2019).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의 행방 - ‘평가에 기초한 배분’을 둘러싸고. “입법과 조사”, 413, 67-76.
- | 문부과학성(2017). “사학 조성에 관한 참고 자료”.
- | 문부과학성(2020). “2020년도 국립대학 법인 운용비 교부금 「성과를 중심으로 실적 상황에 기반한 배분」에 대해서”.
- | 문부과학성(2021a). “자료편 : 제4기 중기목표기간의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의 기본 방향에 대하여(심의 정리)”.
- | 문부과학성(2021b). “2021년도 국립대학법인 운영비 교부금의 중점 지원 평가결과에 대해서”.  
([https://www.mext.go.jp/a\\_menu/koutou/houjin/1417263\\_00002.html](https://www.mext.go.jp/a_menu/koutou/houjin/1417263_00002.html))
- | 왕문사 교육정보센터(2006). “19년도부터 사립 대등 경상비 보조를 대폭 재검토”.
- |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2022). “영화 3년도 사립대학 등 경상비 보조금 교부 상황의 개요”.
- | 정원창(2021). “일본의 사학진흥조성제도 현황과 시사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슈페이퍼. 제10호.
- | 재무성(2020). “문교·과학기술(참고자료)”.